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책 모색

익산시,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개최

익산시는 지난 8일 상황실에서 2018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회의를 열고 악취저감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시는 2018 악취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그간 추진 성과 및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익산시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실적 저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지원을 확대,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장소의 적정성 등을 안건으로 분야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시는 올해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15개소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내년 5월부터 운영 예정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 및 시간

대, 영향권 등을 분석하여 보다 스마트한 악취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에 대한 악취 시설개선 유도로 16개 사업장에서 28억여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하거나 개선 중이 있으며, 야간 악취상황실과 악취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통해 취약시간대 악취발생 감시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철용 익산시 부시장은 "악취 자체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과 행정의 소통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악취대책 민간협의회는 악취문제 해결을 목표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박철용 부시장의 주재 하에 악취 관련부서 공무원, 환경전문가, 환경기술인 및 사업장대표, 악취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대표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군산시는 올 한해 영농현장에서 수고한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성낙도) 주관으로 군산농업인회관 아의 특설무대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또래대 농약동우회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쏟아온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다양한 핫곡식을

한데 모아 군산시 농업인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화합 합곡식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또한 군산시 한우협회 및 한돈협회 주관으로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시식회와 낙농육우협회의 우유, 치즈 등 유제품 시식회를 통해 군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축산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군산시 생활개선회와 한여농 군산시연합회에서도 가래떡과 음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장 한편에는 농업인들의 희망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났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농협현상에서도 농업 농촌



군산시농업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9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김정훈 기자)

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농업인들의 화합과 만남의 장, 농업 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금융상담은 여기로'

내일 군산 공설시장서 '서민금융상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역방문으로의 최초로 오는 13일 군산시 공설시장 1층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을 실시한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종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측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및 금융 서비스(채무조정,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3개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7명의 전문상담사가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과

산 및 개인회생 등의 금융서비스를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상담과 더불어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을 방문해 고객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등을 펼치며 홍보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을 알고 싶은 시민,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조정 방법을 알고 싶은 시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시민, 운영자금에 부족한 자영업자 등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금융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실직·구직자 가정 위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포옹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참가 가정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실직 및 구직자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위기가정 회복 프로그램 '가족명상 힐링허그 사강(사랑과 감사) 포옹 프로그램'에 참여할 20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총주시 '깊은 산속 웅달샘' 아침편지 명상센터에서 진행되며 부부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명상을 통해 인내와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실직 및 구직자 가정 중 초

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450-130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균)에서는 가족캠프 뿐

만 아니라 마음관리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미술 심리치유 등 다양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체험형 관광지 정보화마을 운영

농촌체험프로그램이 11월에 익산시 3개 정보화마을에서 진행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정보화마을에서는 농촌체험을 통해 마을 특산물인 고구마 캐기, 감 따기 등을 직접 체험하고 수확해 시식해볼 수 있으며, 청국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산지에서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 주문을 받고 있으며,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질 좋은 과일도 값싸게 구

입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보화마을 농촌체험으로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시골의 넉넉한 정을 느끼고, 자연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정보화마을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에는 57회 1,775명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86회 1,674명이 참가하는 등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왕궁천 전 구간 정비... 474억 투입

익산시 왕궁면 왕궁저수지에서 춘포면 익산천 합류구간까지 총 9.2km에 이르는 지방하천인 왕궁천이 거둔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천은 주변에 보석박물관과 식품클러스터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마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도에 왕궁천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아 국비 113억 원과 도

비 4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70년대 노후 교량 교체 등 총 사업비 474억 원 규모로 왕궁천 전 구간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목섭 건설과장은 "왕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조정을 승인해 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도에 감사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왕궁천을 치수적으로 안정하고 생태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등 28건 의안 심사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지난 9일 제213회 익산시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 5분 발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애썼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를 통해 증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대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익산시의회의는 11월 28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 우리 시 살림살이에 쓰여질 2019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장 질문을 통해 올 한해 추진되었던 주요 시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